

No.20170426-001

제목: 포기하지 않는 여자

저자: 가쓰라 노조미

페이지수: 306

장르: 소설

출간일: 2017년 04월 18일



<내용소개>

갑자기 사라진 딸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서스펜스 소설

여성의 인생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작가 가쓰라 노조미. 엘리트 공무원과 슈퍼마켓 아르바이트 여직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현청의 별》, 상반된 두 여성의 만남을 다룬 영화 《알미운 여자》의 원작소설가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어느 모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서스펜스 소설 《포기하지 않는 여자》를 발표했다.

프리랜서 작가 및 편집자인 '이이즈카 모모코'는 약 12년 전에 벌어진 사건을 취재해 책으로 펴내려 한다. 당시 36세였던 '교코'는 초등학교 1학년인 딸 '사에'를 한 순간에 잃어버렸다. 어느 때처럼, 사에는 학교를 마치고 엄마가 일하는 펫숍에 들러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교코가 잠깐 슈퍼마켓에 다녀온 사이, 입구 쪽 벤치에 앉아있던 사에가 홀연히 사라진 것이다. 갈 만한 곳에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딸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6년 후, 교코는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살면서 여전히 딸을 찾고 있었다. 남편은 어린 딸을 홀로 두고 자리를 떠던 아내를 용서하지 못했다. 교코는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아이의 신상정보를 담은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면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간다. 그렇다면 사에는 왜,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두 남자에게 납치된 소녀는 어딘지 모를 섬으로 끌려갔다. 그 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설이 있었고 5~15세에 이르는 아이들 여럿이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리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친구들과 잘 지냈다는 것이다. 사실 그곳은 아동장기밀매를 위한 범죄 시설이었으며 사에는 운 좋게 살아남는 아이들 중 하나가 된다. 우여곡절 끝에 실종된 지 7년 만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지만 가족들의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부모는 이혼했고, 아버지의 재혼하여 새 가정을 꾸린 상태였다. 사에는 갑자기 바뀐 생활환경에 차차 적응해나가면서 다시 학교에도 돌아간다. 행방을 알 수 없는 다른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에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반면, 엄마인 교코에게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 서로 떨어져 있던 시간을 채우려던 모녀에게 또 어떤 시련이 닥치는 것일까?

소설은 이이즈카가 관련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진상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사람

마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후회로 남는 부분도 다르다. 아이의 실종이라는 충격적인 사건과 그로 인한 가정의 붕괴, 벼랑으로 내몰리는 듯한 절망이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아슬아슬하게 예상을 빚나가며 전개되면서도 인간에 대한 한줄기 희망을 잃지 않는 소설이다.

<저자소개>

가쓰라 노조미

1965 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회사원, 자유 기고가를 거쳐 2003 년 《죽음 일기》로 〈작가로 가는 길〉 우수상을 받으며 등단하였다. 2005 년 《현청의 별》이 영화화 및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연애검정》은 드라마로, 《싫은 여자》는 드라마 및 영화로 제작되어 화제가 되었다. 그 외에 《참을 수 없는 여자》, 《총 선거 호텔》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No.20170426-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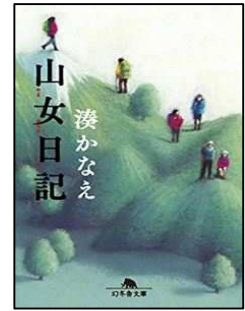
제목: 등산 순례

저자: 미나토 가나에

페이지수: 381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8월 05일



<내용소개>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고민을 안고, 산으로 향한 여자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는 이유는, 잠시나마 근심걱정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단이 끝없이 이어지는 등산로나 위험한 바위 길을 올라가면서 몸의 움직임에 집중한다. 아름다운 꽃이나 단풍이 드는 계절에는 절경 덕분에 행복해진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면 즐거움은 배가 될 것이다. 《고백》으로 유명한 작가 미나토 가나에는 인간 내면을 집요하게 묘사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산녀일기》는 그녀의 작품 중 미스터리 요소가 거의 없는, 보기 드문 스타일의 작품이다.

이 책이 2014년 발간되었을 때에는 7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2016년에 한 편을 더 추가하여 8편의 연작장편소설로 다시 선보였다. <묘코산>은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장인 여성 '에토 리츠코'의 시점이다. 리츠코는 사내 행사에서 구입한 등산화를 계기로 첫 등산에 도전한다. 동료 셋이 같이 가기로 했지만 한 명이 갑자기 빠지게 되고, 리츠코는 평소에 싫어했던 '시바타 유미'와 단둘이 등산을 하게 된다. 약혼자의 집안 사정이 부담스러워 결혼을 망설이는 리츠코는 산에 다녀오면 무언가 결론이 날 지 모른다는 기대를 안고 묘코산으로 향한다. 두 번째 이야기에는 묘코산과 함께 니가타 현에 위치한 <히우치산>이 나온다. 양로원의 사무원으로 일하는 '미츠코'는 젊을 때 꽤 인기가 있었으나 독신인 채 어느덧 40세를 넘겼다. 별 기대 없이 참석한 미팅에서 만난 상대와 커플이 되고 교제를 시작하는데, 그 남자는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미츠코의 생일 선물로 등산화를 건넬 정도다. 그는 미츠코를 극진하게 대하면서 호감을 얻으려 노력하지만, 미츠코는 과거의 어느 사건이 떠올라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이처럼 소설은 나가노 현의 <아리가타케산>, 홋카이도의 <리시리산>, 나가노 현과 도야마 현에 걸친 <시로우마산>, 가나가와 현과 시즈오카 현의 <킨토키산>, 뉴질랜드의 <통가리로(Tongariro)> 등 일본 국내외의 실제 산과 관련된 이름을 각 제목으로 따왔다. 나중에 추가된 <가라사와 축제에 가자>에는 매년 특정 산들을 묶어 개최되는 산악이벤트 '가라사와 축제'가 등장한다.

각 주인공들은 저마다 고민을 안고 있다. 자신의 삶의 방식에 의문을 갖고 있거나, 인생에서 방향 중이거나, 자기를 이해해줄 사람이 없어 힘들어한다. 혹은 떨칠 수 없는 열등감이나 이별의 슬픔에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 여성들이 산에 오르는 과정을 통해 힌트를 발견하고 답에 가까워

진다. 타인이 대신 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하고 극복해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도 감동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목차소개>

묘코산(妙高山) / 히우치산(火打山) / 야리가타케산(槍ヶ岳) / 리시리산(利尻山) / 시로우마산(白馬岳) / 긴토키산(金時山) / 통가리로(Tongariro) / 가라사와 축제에 가자

<저자소개>

미나토 가나에

1973년 히로시마 현에서 태어났다. 2007년 <성직자>로 제29회 소설추리신인상을 받았으며, 해당 작품을 수록한 데뷔작 《고백》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012년 <망향, 바다의 별>로 제65회 일본 추리작가협회상(단편부문), 2016년 《유토피아》로 제29회 야마모토 슈고로 상을 받았다. 그 외에 《N을 위하여》, 《이야기의 끝》, 《절창》, 《리버스》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No.20170426-003

제목: 필요 없는 부하, 예뻐 받는 부하: 신(新) 직장 내 인간관계론

저자: 아라이 켄이치

페이지수: 232

장르: 비즈니스,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4월 11일



<내용소개>

직장 내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지금, 훌륭한 상사와 부하의 조건은 무엇일까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인사평가에 따라 연봉·복지 등 대우가 바뀌거나 승진이 결정된다. 구성원 전원이 만족하는 평가는 없으며,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꼭 존재한다. 실제로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를 잘못된 방법으로 대하거나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인사평가에 사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매일 자신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므로 주관적인 요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부하 직원이 상사의 호감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일까?

이 책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회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좋은 상사 및 부하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화가 가속화 되면서, 어디에도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선보여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다른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모방하고 개량하며 성장하던 시대의 상사들은, 강한 통제력을 발휘하며 ‘멍쳐야 산다’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은 멍쳐도 살 수 없다. 상사나 회사가 부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부하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업계 경쟁에서 이겨야 뭉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저자가 수행한 현직 회사원들 대상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요즘 상사들은 사내접대에 능숙한 부하를 원한다. 즉 “자신이 곁에 없을 때에도, 부하로서 상사인 자기의 가치를 높여줄 사람”이다. 지시한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는 동시에 가끔은 상사에게 직언을 건넬 수 있는 건전한 예스맨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부하 역시 상사를 잘 평가해야 한다. 무시해도 되는 상사,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상사를 구분할 때 그 기준은 ‘높은 지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출세기에서도 한 발 떨어져 있는 상사일수록 배울 가치가 있는 인물일 수 있다.

상사와 부하의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이유는, 서로 좋아해야 조직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결속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부업을 갖는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증가 등 근로방식의 변화가 나타내는 의미까지 고민해봄으로써 ‘커리어’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자신의 커리어를 순조롭게 꾸려가려면 상사 및 부하와의 우호적인 관계는 필수다.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의 벽을 허물어 가는 노력은 언제나 필요하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사-부하 관계의 변화를 바라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지금, 아슬아슬한 부하는?

제 1장: 예뻐 받는 부하는 선물을 잊지 않는다 - 요즘 상사가 요구하는 사내접대

제 2장: 무시해도 되는 상사, 업신여기면 안 되는 상사 - 출세 레이스에서 떨어져 있는 상사가 가치 있다

제 3장: 선택 받는 부하는 상사를 보고 있지 않다 - 출세하는 부하, 못 하는 부하

제 4장: 부하의 인간성은 식사비 계산으로 드러난다 - 상사는 부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제 5장: 대기업 샐러리맨이 왜 부업이 필요할까 - 앞으로 회사원의 근로방식은

<저자소개>

아라이 켄이치

경영 컨설턴트, 아시아 사람&시스템 연구소 대표.

1972년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났으며,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대형 중공업 기계업체의 인사부, Arthur Andersen(현: KPMG), 의료·IT계열 벤처기업 임원을 거쳐 독립하였다. 대기업 대상 인사컨설팅, 창업지원 등 컨설팅 세미나를 전국에서 개최하고 있다. 저서는 《필요 없는 과장, 훌륭한 과장》, 《훌륭한 상사》 등이 있다.

No.20170426-004

제목: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며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

저자: 가타다 다마미

페이지수: 208

장르: 심리

출간일: 2017년 02월 07일



<내용소개>

당신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사람들! 주위에 민폐가 되는 사람들의 정신구조를 살살이 파헤쳐본다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도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실수'와는 명확히 구별돼야 한다. 순간 생각이 짧아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나 당황해서 무례하게 굴거나 약간의 손해를 준 경우라면 서로 이해를 부탁하고 받아줄 수 있다. 약간 모자란 부분을 서로 포용하고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적 삶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친 이기주의로 일관하며 타인의 기분을 마구 휘젓는 사람들은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객관화가 아예 되지 않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어디에나 한 명씩은 있다. 기자회견에서 특정 언론사를 향해 소리치며 질문 받기를 거부하거나,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집단을 트위터에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유형으로 손꼽힌다. 우리 주위에도 상사, 동료, 친구, 부모나 형제 등의 가족, 또는 온라인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SNS친구들에게 등등 어딘가에 잘 숨어 있을 것이다.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무례하게 굴 때에는 무시하면 된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이므로, 민폐를 끼칠 때마다 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 책은 '타인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사람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1장과 2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주변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사회의 특징을 파악한다. 시간, 에너지, 정신적인 측면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주고도 당하는 사람을 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누구나 '휘두르는 사람'이 되기 쉽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3장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자신은 특별하다는 특권의식, 주변인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는 과도한 지배욕구, 욕구 해소 능력의 부족, 자기중심적이면서도 타산적인 모습 등 휘두르는 측의 주요 유형을 알아보면서 그들의 정신 구조와 원인을 분석한다. 한편 4장은 당하기만 하는 쪽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너무 낮은 자기 평가와 그로 인한 열등감,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을 회피하며 고립을 지향하는 태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소개한다.

'제멋대로 타인을 휘두르는 사람'을 완벽하게 피할 수 없다면, 정체를 면밀히 파악하고 현명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 정신과 의사가 실제 상담 사례를 풍부하게 내세우며

설명한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타인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사람>이 증식하는 현대

제 2장: 누구든 자칫하면 '휘두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제 3장: <타인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사람>의 정신 구조

제 4장: 휘둘리기 쉬운 사람의 책임

제 5장: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 위한 처방전

<저자소개>

가타다 다마미

정신과 의사. 히로시마 현에서 태어났으며, 오사카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다. 교토 대학 대학원에서 인간·환경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프랑스정부국비유학생으로 파리 제8대학 정신분석학부에서 라캉파 정신분석학을 배웠으며 DEA(전문연구과정수료증서)를 취득하였다. 파리 제8대학 박사과정 중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풍부한 임상경험에 기초해 범죄심리와 심리 질환을 분석한다. 사회의 밑바닥에 잠재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연구하며 사회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타인을 공격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화제를 불러 일으키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독불장군 상대하기》, 《금세 감정적이 되는 사람》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70426-005

제목: '게으름 습관' 버리기 훈련

저자: 가토 토시노리

페이지수: 224

장르: 자기계발/뇌과학

출간일: 2017년 03월 08일



<내용소개>

뇌가 갖고 있는 '게으름 습관'을 버리는 비결을 소개한다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을 일으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날이 있다. 일단 한 번 쉬었더니 멈췄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피로감이나 줄린 기운이 몰려오면서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험을 해 본적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것, 어렵다고 생각하던 것을 시도할 때 지나치게 느려지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면 두뇌가 일시적으로 둔화되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다. 게으른 것이야말로 우리 뇌의 본 모습이다. 귀찮아하고 쉬고 싶어하는 성향은 모든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뇌의 기본 설정이다.

이 책은 뇌가 '귀찮음'에서 벗어나 잘 움직이는 방법,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뇌의 활동 상태 계측법 'fNIRS'를 발견한 저명한 연구자이며, 관련 시설을 설립해 대중에게 뇌 관련 예방의료를 전파하고 있다. 그는 귀찮음이 발동되는 것이 뇌의 비상신호라고 이야기한다. 약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뇌의 능력을 최대화 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뇌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일 것. 둘째, 뇌가 싫어할 때에는 작업을 시키지 않을 것. 셋째, 뇌가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둘 것. 넷째, 뇌가 좋아하는 보상을 충분히 제공할 것.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기 앞서, 뇌의 성격을 숙지해야 한다. 1장에서는 '귀찮다'는 알람이 울리기 쉬운 7가지 상태, 자칫 습관이 되기 쉬운 귀찮음의 정체를 설명한다. 2장은 동기부여가 확실한 뇌로 변하는 강화법을 소개한다. 시키는 일을 하는 뇌에서 스스로 하고 싶은 상태가 되는 뇌로 바뀔 수 있다. 귀찮음이 줄어드는 과정 시각화하기, 각성을 촉진하는 아침 10분 테크닉, 귀찮음이 사라지는 장소 선정 등 단기간에 준비를 마치는 뇌가 되는 것이 목표다. 3장에서는 뇌를 스스로 어르고 달래는 방법을 제시한다. 욕심이 많고 포상을 좋아하는 것 역시 뇌의 성질을 이용하면 된다. 4장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귀찮음에 초점을 맞춰, 보다 활기차고 건전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본다. 마지막 5장은 행복한 뇌를 만들 수 있는 셀프 팁을 제시하며 '귀찮음'이 오히려 뇌가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귀찮다며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귀찮음이 사라진 듯 부지런하고 성실히 움직이는 사람의 인생에

는 큰 차이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자기의 뇌를 잘 통제하여 귀찮음의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다.

<목차소개>

- 1장: 뇌는 원래 쉽게 귀찮아한다 - <뇌>의 성격을 알아보자
- 2장: <시키는 대로 하는 뇌>에서 <하고 싶은 뇌>로 - <귀찮음>을 없애는 뇌 강화법
- 3장: 욕심쟁이에 보상을 좋아하는 뇌의 달래는 방법 - <귀찮음>을 유용하게 써 보자!
- 4장: <귀찮은 사람>과 <귀찮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 인간관계의 <귀찮음> 해소법
- 5장: <귀찮음>은 뇌의 성장 스위치 - 행복한 뇌는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저자소개>

가토 토시노리

의사(의학박사), 주식회사 <두뇌 학교> 대표 및 '가토 플라티나 클리닉'의 원장을 맡고 있다. 쇼와대학 객원교수, 발달 뇌 과학·뇌기능 생리학·MRI 뇌 화상 진단 전문가, 소아과 전문의. 니가타 현에서 태어났으며 14 세에 <뇌를 훈련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의학부 진학을 결심했다. 1991 년, 뇌 활동 계측 <fNIRS>를 발견했으며 현재 세계 700 곳 이상에서 뇌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1995 년부터 2001 년까지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방사선과 MR 연구센터에서 알츠하이머와 뇌 화상 연구에 종사하였다. 귀국 후, 게이오기주쿠대학교와 도쿄대학 등에서 뇌 연구에 참여했다. 태아부터 고령자까지 1 만 명 이상의 MRI 뇌 화상과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했다. 2006 년 주식회사 <두뇌 학교>를 세우고 2013 년 '가토 플라티나 클리닉'을 열었다. 비즈니스 뇌 능력 진단, 발달장애와 치매 등을 갖고 있는 뇌가 성장하는 예방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저서에는 35 만부를 넘은 베스트셀러 <기적의 두뇌 강화법>시리즈, 《뇌가 알고 있는, 화내지 않는 비결》,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는 뇌 사용법》 등이 있다.

No.20170426-006

제목: 프랑스인은 바캄스를 미루지 않는다: 인생이 순조롭게 풀리는 '지적인
에고이즘' 라이프

저자: 이쿠시마 아유미

페이지수: 176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12월 17일



<내용소개>

일도 인간관계도 순조롭게 풀리는 '지적인 에고이즘'을 향해

장시간 노동과 잦은 야근이 고질적인 한국 사회에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이제 낯설지 않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일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름이나 겨울이면 휴가를 떠나는 것이 사회의 암묵적인 룰이지만, 눈치를 보며 쓰거나 자진반납 해야 한다면 불만을 호소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유럽권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거나 유럽 회사와 거래를 해 본 적이 있다면 알 것이다. 그들은 업무가 얼마나 밀려있든 모든 일을 중단하고 2~3주 가량 정해진 휴가를 떠난다. 회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휴식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아무도 비난하지 않으며 남은 인원이 업무를 대체한다. 이 책의 저자가 눈여겨본 프랑스의 모습도 그런 면이 아닐까?

저자는 개인의 개성을 발견하고 살려야만 하는 시대, 많은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지금 시대야말로 프랑스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응용해야 할 때라고 제안한다.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었고 통역과 문화 교류에 관련된 일을 꾸준히 담당하며 양국의 다리 역할을 자처해 왔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지적 에고이즘>은 그녀가 프랑스인의 삶의 방식을 지칭해 새롭게 만든 말로서 철학의 '에고' 개념을 접목시킨 것이다. 즉, 스스로를 억압하던 틀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자신의 잠재력과 비전을 믿고 나아가게 돕는 라이프스타일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그 밑바탕이 되는 개인주의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제멋대로 구는 이기주의와는 명백히 다르다. 자유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독립적 개체로 받아들이는 관용,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추구하고 배워나가려 노력하는 전문분야 개척의지, 감정과 합리적 이성의 균형 하에 사물을 판단하는 것, 항상 목적의식을 갖고 즐기려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올바른 대화 및 토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개인주의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교양과 생활의 즐거움을 몸에 배도록 만들어 줄 '관용'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공존 대상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느긋해지고 인간관계도 인생도 여유로워진다.

너무 많은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요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쓸리고 내몰리기 쉬운 30~40대에게 '지적 에고이즘'을 특히 추천한다. 저자 주변에서 지적 에고이즘을 실천하는 프랑스

인의 사례, 본인의 경험담을 제시하면서 자유롭게, 나답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길을 안내한다. 해방과 자유는, 자기를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지적 에고이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남은 생을 바꿔보도록 하자.

<목차소개>

시작하는 글 - 시선이 닿는 곳을 바꾸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

Chapitre1. <지적(知的) 에고이즘>의 기본은 개인주의

Chapitre2. 여유가 100배로 늘어나는 <지적 에고이즘>의 업무 방식

Chapitre3. 분위기를 읽지 않는 쪽이 인간관계는 더 잘 풀린다

Chapitre4. <생활의 아름다움> - 스스로를 즐겁게하는 인생철학

마치는 글 - "관용"이 지적 에고이즘 실천의 축입니다

<저자소개>

이쿠시마 आयुमी

오사카 부에서 태어났다. 고난대학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캐나다·프랑스·독일에서 어학과 꽃꽂이를 배우기 위해 유학하였다. 현재, 여행회사 <Windows to Japan>에 근무하며 영어·프랑스어 통역 및 통역안내사(주로 개인VIP 대상) 일을 맡고 있다. 일본의 문화·역사(특히 음식과 정원)를 소개하기 위해 사가고류(嵯峨御流)사범·일본정원디자이너·푸드코디네이터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셰프 접대, 클래식 음악 관련 TV프로그램에서 인터뷰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풍 플라워 레슨도 교토에서 개최한다. 칸 영화제의 꽃 장식에 협력 및 참가한 경험이 있다. 유럽(특히 프랑스)과 일본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 성심성의를 다해 대접하는 것) 문화론"을 체계화하고 강습회와 오리지널 투어를 기획 및 진행 중이다.

출간일: 2017년 04월 12일

노후준비 없이 어느새 50대가 되었다! 자영업자를 위한 실용적인 노후대비 에세이

빈곤한 노후를 보내지 않기 위해, 죽을 때까지 흑자가 유지되는 인생을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가 아닌, 주위에 있을 진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이야기라 더욱 진솔하게 와 닿는다.

おはいつも加藤さん

老後 楽しく 豊かに 生きられるはず!!

本は図書館で借り

同じ図書館 返しの 老友ができ

道端の花を愛で

趣味の散歩で 動物と会話

橋本の世話をしとり アウトマトを橋元たり

たまーに 老友とランチ

甘い!!

プチッ

図書館とか 公共の場まで 楽しく暮らせ ずいぶんいろいろ できているんです





194



195

12 一生懸命でいられる会計の知識

<목차소개>

1. 노후준비에 열심인 30대 디자이너 가토 씨
2. 90세까지의 생애수지를 계산해보다
3. 65세 프리랜서 작가 사타케 씨의 생활과 가계
4. 병과 일
5. 연금 전문가인 다나카 선생님을 만나러 가다
6. 연금, 내려 갔다고!
7. 자영업자이지만 집을 사다
8. 자영업자의 주택 대출
9. 80대에 일한다는 것
10. 보험 이야기
11. 집주인이 되고 싶다
12. 일생 동안 흑자로 살 수 있는 회계 지식

<저자소개>

우에다 소코

53세, 일러스트레이터 경력 28년. 지금까지 잡지·서적에 돈과 관계된 일러스트와 만화를 많이 그려왔지만, 금전관련 지식과 센스는 부족하여 미래설계를 하지 않은 채 50대에 들어섰다. 사무절차도 매우 서툴지만 마감기한은 반드시 지키는 성실한 노동자다. 공저 《(만화) 여자를 위한 돈에 대한 기본상식》, 《(만화) 읽기만해도 조금 더 좋아지는 당신의 영어 회화》 등이 있다.

* 블로그 <http://ameblo.jp/nekonobitti/>

No.20170426-008

제목: 귀찮으니까, 하자

저자: 와타나베 가즈코

페이지수: 162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3년 12월 19일



<내용소개>

독자의 일상을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할 '와타나베 가즈코'의 힐링 에세이

존경 받는 교육자이자 종교인의 삶을 보내고 2016년 말 세상을 떠난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 엘리트 집안에 태어났지만, 아홉 살에 아버지가 눈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상황을 목격했다. 수도회에 입회하고 유학을 거쳐 30대 중반에 교수 및 학장을 맡는 등 많은 사회적 성취를 이뤘다. 그와 별개로 어릴 적 부친을 잃고 가정이 파괴된 아픔을 떨치기 힘들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 한 신부가 건넨 시 한 편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와 희망을 베푸는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한다. 베스트셀러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를 비롯해 다수의 저서가 한국에도 번역 출간되어 호평 받았다.

《귀찮으니까, 하자》라는 제목은 모순적이다. 귀찮으니까 그만두는 편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 안에 숨겨진 뜻은 “성가셔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결국 나 자신을 위해 하자”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모두 괴롭고 귀찮음을 피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보다 인간답고 보다 좋은 삶을 실현한다는 것은 곧 그런 자연스러운 경향과 싸운다는 것이다. 여유가 생겨나고 물건이 넘치는 지금 시대야말로 그런 싸움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저자는 총 4개 장을 통해 우리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사실들을 차분하게 이야기 한다. 1장, <충실하게 살다> 편에서는 일상의 작은 부분에 정성을 기할 것을 설명한다. 소소한 것에도 큰 애정을 담기, 매일 새로운 기분으로 일하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진심으로 하루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등이다. 2장, <행복은 스스로 결정한다>에서는 지쳤을 때에도 스스로를 힐링하는 비결, 발상의 전환으로 삶의 방식 바꾸기, 주위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고 자기답게 살기와 같은 메시지가 들어있다. 3장, <내가 걸어온 길>은 본인의 경험이 더 많이 드러나 있으며 상처와 시련이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4장,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한다>에는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부정하지 말 것, 무엇이 문제인지 항상 의식하는 것 등을 제안한다.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의 책에 대해, 누군가는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이 말할 법한 원론적인 메시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적인 고뇌를 충분히 겪은 사람이다. 그 속에서 방황하며 찾아낸 답이

결국 그 원점인 것이다. 머리로 배우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가르침들을 이 책을 읽으며 다시 한 번 되새겨보자.

<목차소개>

제 1장: 충실하게 살다

제 2장: 행복은, 스스로 정한다

제 3장: 내가 걸어온 길

제 4장: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한다

<저자소개>

와타나베 카즈코

1927년 2월, 교육총감 와타나베 쇼타로의 차녀로 태어났다. 세이신여자대학 졸업 후 1954년 쇼치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56년 노트르담 수녀회에 입회, 미국으로 파견되어 보스턴칼리지 대학원에서 공부하였다. 1974년 오카야마현 문화상(문화공로), 1979년 산요신문상(교육공로), 오카야마현 사회복지협회의 제세상, 1986년 Soroptimist 일본재단에서 센 카요코 상, 1989년 미키 기념상을 받았다. 노트르담 세이신여자대학(오카야마)교수를 거쳐 1990년 3월까지 동 대학 학장, 이후 노트르담 세이신 학원 이사장을 맡았다. 2016년 12월 30일 타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사랑과 기도로 아이는 자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들》, 《아름다운 사람에게》, 《사랑과 격려의 말 366일》, 《마더 테레사 사랑과 기도의 말 (번역본)》 등 다수가 있다. 2012년 출간한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는 140만부를 넘는 베스트셀러로 큰 화제가 되었다.

No.20170426-009

제목: 하코의 상자

저자: 다케시타 후미코(글), 마에다 마리(그림)

페이지수: 34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07년 09월



<내용소개>

‘상자’를 매우 좋아하는 고양이 하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양이 하코는 상자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무엇이든 빈 상자만 보이면 바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맥주상자, 케이크상자,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몸을 둥글게 말아 작은 상자에도 들어갑니다. 둥근 상자에 들어갈 때는 몸이 동그랗게, 네모난 것에 들어갈 때는 몸도 네모지게 변합니다. 이따금 풀이 심어져 있는 화분이라던가 너무 차가운 냉장고처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코의 눈으로 보면 이 방도, 이 집도 커다란 상자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눈이 내려도 모두 막아주므로 집안, 방안에만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코는 상냥한 가족들이 있는 이 커다란 상자를 좋아합니다.

대체로 좁은 곳을 선호하며, 자기 몸 크기만한 빈 상자나 봉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즐기는 고양이의 습성을 표현했습니다. 두 작가 모두 고양이를 좋아하고 고양이에 대한 작품을 다수 발표했는데, 이 책에서도 하코는 귀엽고 사랑스럽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양이의 특징과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상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글이 많지 않아 어린 아이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선과 채색이 투박한 그림체는 단순하면서도 세심한 결이 특징입니다.

<본문이미지>





<저자소개>

다케시타 후미코(글)

1957년 후쿠오카 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가쿠게이대학을 졸업했다. 「검은 고양이 산고로」 시리즈 (로보노이시 유소년 문학상 수상)와 《나도 안아줘》, 《고양이 도우미》 등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다수 발표하였으며 그 외에 《펭귄표 냉장고》, 《뽀로뽀로 편지》, 《작은 의자》 등의 작품이 있다.

마에다 마리(그림)

1963년 이시카와 현에서 태어났다. 그림책 《키우면서 놀자 양배추 그림책》, 《모두 있을까》, 《고양이는 재즈를 좋아해》, 《모자가 뽀뽀》 등의 작품이 있다. TV프로그램 <엄마랑 놀자!>의 이야기 코너와 <고양이 탐정 쇼타로> 시리즈 등의 그림을 그렸다.

No.20170426-010

제목: 도둑 '누스토'

저자: 다카바타케 준코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12월 02일



<내용소개>

한 번 노린 물건은 반드시 손에 넣는 도둑 '누스토'와 왕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밤에 몰래 부잣집에 들어가 돈과 보물을 훔치는 '누스토'는 마을에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한 번 노린 물건은 반드시 손에 넣는다는 누스토는 어느 날 왕에게 도전장을 받습니다. "무엇이든 훔친다는 도둑 누스토, 내 보물을 가져가봐라. 승부다!"

왕의 제안을 받아들인 누스토는, 오늘 밤 훔치러 가겠다는 답장과 함께 자신이 가져갈 물건을 그린 힌트까지 전달합니다. 왕은 병사와 하인 및 신하들에게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그림인지 물어봅니다. 금과 은 다이아몬드가 매장되어 있는 산을 노린 것이다, 이웃나라에서 받은 황금달걀이다, 코끼리 발톱이다, 금으로 만든 왕의 동상이다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옵니다. 왕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모아 지키라고 명령하고는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사라진 물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왕은 자신이 이겼다고 기뻐하지만 뒤늦게 알아챱니다. 그 힌트 그림은 거꾸로 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스토는 무엇을 훔쳤을까요?

'매일매일이 따분한 왕 vs. 순발력 좋은 도둑'이라는 간단한 설정, 허를 찌르는 마지막 힌트가 즐거움을 안겨주는 그림책입니다. 다 읽은 뒤에는 반대로 왕이 낸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다카바타케 준코(글)

1980년, 효고 현에서 태어났으며 도시샤대학 문학부를 졸업하였다. 2013년에 《착한 아이는 이제 잘 시간》으로 데뷔하였다. 《부비와 미끄럼틀》, 《마녀가 감기에 걸리면》등의 작품이 있다.

다카바타케 준(그림),

1948년 아이치 현에서 태어났으며, 아이치교육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하였다. 《누구 자전거일까?》로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그래픽 상, 《아이, 셔》로 일본그림책 상, 《나무늘보 두 마리》로 고단샤 출판문화상 그림책 상을 받았다. 그림책으로는 《수박의 여행》, 《코끼리가 있다니 멋지다》등의 작품이 있다.